

사람 몸을 입은 것은 마귀를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

구세주는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격암유록에 써있죠?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써어 있어요. 왜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마귀를 이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승리가 구세주가 된 거죠. 오늘날 진짜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내 눈 앞에 있으니 이거야말로 꿈만 같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안식일의 정의

그런고로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박사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을 전부 파헤쳐 바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6000년 만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600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주인공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어 있죠. 6000년 만에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고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서 온 우주를 하늘나라를 이룩하게 되는데 바로 온 우주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고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무궁토록 쉬는 시대가 바로 7000년 시대죠? 7000년 시대가 이레 되는 날 쉬신다는 말씀에 해당 하는 말씀이죠?
기독교에서 이 안식일의 정의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안식일에 참여할 자가 있고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요일이나 금요일이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겠어요? 일요일이나 금요일이 안식일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에 참여할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은 바로

6000년 다음 천 년 동안에 안식일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고로 그런고로 6000년 전에 사람들은 전부 안식일에 참여 못한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7000년대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참여를 못한 거죠? 7000년대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의 마귀가 전멸되어 하나님 만이 사는 세상이므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이 마귀를 죽여 없애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마귀가 한 마리도 없으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의 정의조차도 모르는 것이 기독교죠?
바로 마귀를 소멸시키는 주인공이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6000년대에 나타내서 7000년 되가지 완전히 마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부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면 바로 7000년대 가서는 온 우주가 하늘나라요 온 우주가 하나님만이 사는 세상이고 그런고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바로 쉬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7000년대에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7000년 전, 6000년 전, 5천년 전, 4천년 전에 안식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안그래요? 성경 66권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대총대총군데군데 자기 보고싶은 데만 보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주동이를 가지고 까불어 봐야 그거 무식한 소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믿음론
이 사람이 구원론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



구세주 조희성님

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지 빨간 것이다, 노란 것이다 색깔을 말한 것이 없죠? 또 믿음의 모양도 말 안했죠? 믿음이 동그란 거다 사각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말 한 것이 없죠. 다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선물이지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면 선물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을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야 맞죠? 그래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 안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의 신이 틀림이 없는 거죠? 영생의 신은 사망의 신을 이긴 하나님의 신이 믿음이라고 해야 맞죠? 그러니까 사망의 신을 이기고 사망의 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신이 바로 구세주의 영이예요. 실체자의 영이예요? 구세주의 영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이지가 맞

는 얘기죠. 그래 안그래요? 구세주의 영은 감도 이슬성신이요 감도 이슬성신만 내리면 바로 마귀가 소멸되고 마귀가 완전히 멸망되니까 감도 이슬성신이 믿음이죠? 감도 이슬성신이 곧 생명과 같이요? 그런고로 감도 이슬성신을 가지고 있는 이간자가 바로 뭐예요? 바로 승리가 라고해도 맞고 믿음이 라고 해도 맞고 완성자라고 해도 맞고 구세주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래 안그래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몸을 입은 구세주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사람 몸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 몸을 입은 것은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은 거지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은 것은 아니죠? 세상 말씀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

을 수 있다고 그러죠?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가 있죠? 이와같이 사람을 구원할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사람을 영생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거 뿐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를 이길 자신이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은 거지 자신만만한 능력이 없었다면 사람 몸을 입을 수 있을 까요? 없죠?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고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우리는 사람 몸을 입고 온 구세주를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야 되죠? 환영을 하려면 웃으면서 환영을 해야죠? 웃어봐! 그렇게 웃어가지고는 시원치 않아.

웃으면 하나님이 꼭 된다

웃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과학자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몰라요. 웃으면 피가 맑아져요.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웃으면 하나님 꼭 돼. 매일 웃어볼래. 매일 웃어오 그러면 하나님 돼. 매일 웃으면 하나님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희열의 마음이에요. 기쁨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만날 웃으면 하나님이 꼭 되게 되어 있어요. 피가 하나님 피로 변하니까 몸이 하나님 몸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 몸이 하나님 몸으로 변하면 병 걸릴까, 안 걸릴까? 있던 병도 다 소멸되서 없어져버려. 웃으면 암도 낫고 어떠한 죽을병도 다 낫는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죠. 이 사람의 말이 보통사람 말하는 것

처럼 말하지만 완전한 과학적인 말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던져야 안 이루어지지 말씀을 던졌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세주야. 구세주는 뭐든지 맘대로 하고 말씀만 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구세주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지 구세주는 매일 제단 나오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오늘 하루는 빠진다. 이런 것은 자유율법에 걸려요.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당하리라 성경에 써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루라도 폐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죠. 안 죽으려면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안 나오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매일 나와서 감도 이슬성신을 받아 먹으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열일 백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해야지 하나님 제단을 빠지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는 죽음의 함정으로 빠져요. 아시겠어요?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어야죠? 그 래야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죽지 않는 비결이고 죽지 않는 방법이예요. 매일 제단에서 예배하고 매일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데리고 오잖 아요 그러면 한두 번의 죄가 전부 감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그렇게 좋은 거 예요. 전도를 하면 한두 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두 번 실수한 것을 용서 받으도록 하는 게 좋겠죠?*

2002년 1월 7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6) 세일 산자락에 에돔 부락을 이루 고 족장이 된 에서

(지난호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할랏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할랏은 여호와께로부터 풍겨오는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 낙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단(야곱)의 장자, 한민족의 시조 단군으로 변신하더니 마할랏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Ishmael)의 딸 마할랏은 나 여호와의 향취를 맡았노라. 내가 낳은 딸 바스맛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피가 흐르는 심판자(히브리어로 ‘단’,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과 혼인하여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의 믿는 이스마엘의 딸로 인하여 에돔은 오래 보전 될 것이니라.”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



마할랏 앞에 청년 ‘단’으로 변신한 하나님

금 그가 주인 어른을 만나러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형 수되시는 마할랏이 ‘야곱 서방님의 자녀들과 아내를 앞세워서 형 에서를 맞이하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3장 야곱의 하나님》

(7)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옵나 내가 내 자랑스러운 자리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로 나누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밤을 지새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로 암염소 백여 마리, 숫염소 스무 마리, 암양 백여 마리, 숫양 스무 마리, 젓을 빨리는 낙타 서른 마리와 딸린 새끼를, 암소 마흔 마리, 황소 열 마리, 암나귀 스무 마리, 수나귀 열 마리를 고했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것들을 제각기 여러 떼를 지어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가는 종에게, 형 에서가 너희는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 가족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을 때,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며, 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며 뒤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로 선 종들에게도, 그다음에 뒤따르는 종들에게도 같은 대답을 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려, 그의 마음을 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들은 예물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밤을 새다가 두 아내와 열한 아들과 두 여종을 데리고서 압굽 나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서 압굽강변을 따라 걸어서 동쪽으로 4킬로미터쯤에 와서 거기서 또다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7)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 중에 야곱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보름달 속에 이스마엘의 딸이요, 형 에

서의 형수되시는 마할랏의 웃는 얼굴이 가득 담겨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야곱의 몸을 짙 붙잡는 힘센 팔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드리다 깜짝 놀라서, “누구뎀!”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정체 모를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끼리 씩씩 힘찬 숨소리를 내면서 걸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힘이 세었지만, 야곱을 붙잡고 있는 그도 여간 힘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씩씩으로 밤이 새고 동녘 하늘이 벌써 밝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씩씩하는 상대방은 마지막 방법으로 야곱의 엉덩이를 찼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환도빠가 위골이 되어 절뚝거리는 가운데서도 그의 팔을 놓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주 초조해 하면서, “내 팔을 놓아 주지 않겠나?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해, 날이 다 새기 전에.” 하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곱은 상대의 몸과 부대끼면서 씨름하던 중 그 상대방으로부터 풍겨오는 여

호에게서 나는 향취를 맡고, 그가 천사라는 것을 알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사이군요. 마침 잘 되었습시다. 내게 축복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야곱은 더욱 세게 그의 몸을 움켜잡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야곱이로소이다.”
“야곱,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고는 천사는 야곱을 축복해 주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여 그 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축하는 자’라는 ‘야곱’이름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이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긴자’라는 이름을 축복해주기 위해 일부러 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야곱의 열성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찌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 요리할 때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난 야곱의 엉덩이 명은 푸른 반점모로 새겨져 그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엉덩이에 몽고반점을 하고 태어나는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너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이긴자’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